스리랑카 불교 "'포손 축제' 상업화 말라"

불교 전래 기념일
유흥 전락 의미 퇴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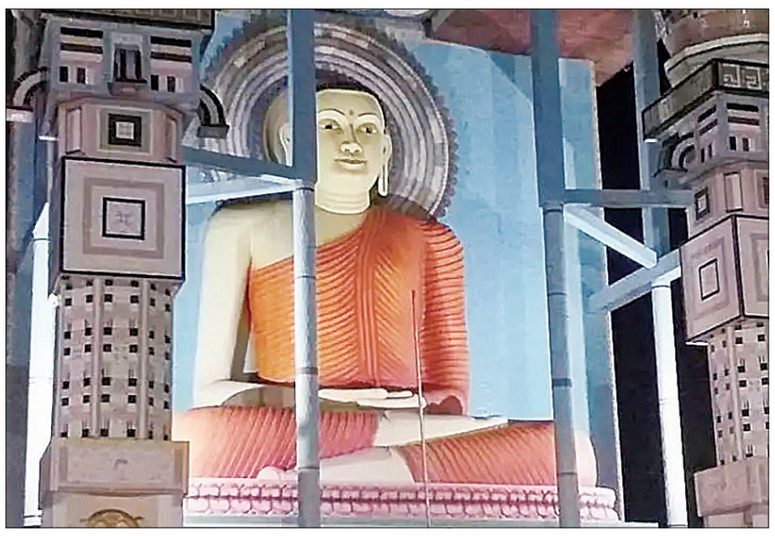
박영빈 객원기자

남아시아 불교국가 스리랑카에서 부처님의 탄생·성도·열반을 기리는 베삭 축제에 이어 두 번째로 중요한 불교축제인 '포손 축제'의 상업화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UCA 뉴스'는 6월 6일 현지 언론을 인용해 "스리랑카에 불교가 처음 전해지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 열린 '포손 축제'의 상업화를 지적이 스리랑카 불교계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6월 4일 콜롬보에서 대중스님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가진 스리랑카 불교협회장 툼불레 실락칸다 스님은 "스리랑카 불자들에게 신성한 이날, 단순한 연례축제나 휴일이 아닌 종교적으로 중요한 기념일로 바르게 기념되기를 정부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스님들은 "전국 각지의 도시와 마을에서 열리는 포손 축제 주간 동안 길거리에서 진행 춤, 민속공연, 연극과 만담, 귀신의 집과 전시 등은 불교적 가치에 어긋난다"고 강조하며 지역 불교계가 이 같은 프로그램을 조직하지 말 것을 호소했다.


스리랑카 포손 축제 기간중 길에 모셔진 불상. 사진출처=UCA 뉴스

포손 축제는 스리랑카 달력으로 7월인 포손 달의 보름에 거행되며, 올해는 양력 6월 10일에 진행된다. 이 축제는 기원전 3세기 인도의 아쇼카 왕이 파견한 포교사인 마힌다 장로가 미힌탈레에서 스리랑카의 데바남피야티사 왕을 만나 첫 설법을 한 것을 기념하는 축제다. 전통적으로 스리랑카의 불자들은 축제 기간 사찰을 찾아 팔관재계를 받아 지니고 명상을 하거나 설법을 듣고 이웃들에게 무료로 음식이나 생필품을 보시하는 등의 신행생활을 한다.

출가자뿐만 아니라 재가신자 단체들도 스님들의 기자회견에 동의하는 성명을 잇달아 발표했다.

불교학교 교사인 니리샤 출라니는 "포손 축제의 명물처럼 소개되는 귀신의 집 전시나 악마의 춤, 거리연극 등은 사실 불교의 내용을 좀 더 쉽게 대중들에게 소개하고, 선업과 악업의 결과를 체험 예술적으로 보이기 위한 것이었다"면서도 "그러나 점차 불교적 내용 보다는 유흥거리의 하나로 의미가 퇴색해 본래의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재가단체는 "자선기금을 모금하기 위한 불교단체의 길거리 음식판매가 전문적인 노점상들과 혼동되고 있다. 전문 노점상들은 축제에서 내야하는 참가비나 세금을 피하기 위해 불교기를 걸거나 부처님의 사진을 내거는 등의 부정행위를 하곤 한다"며 정부의 명확한 지도와 관리를 촉구했다.

지난 2년 동안 스리랑카 정부는 심각한 외환위기를 겪었고, 불교계는 스리랑카 정부의 재정 지원 제안을 거절하면서 불교계와 시민들이 축제 자금을 지원했다. UCA 뉴스는 이러한 과정에서 민간단체의 축제 참가가 늘면서 갑작스런 상업화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올해부터는 다시 정부가 포손 축제를 후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리랑카 불교계는 "포손 축제가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샤카디타, 제19차 세계여성불교대회 연다

6월 16~20일 말레이시아서



세계 여성불자모임 샤카디타가 개최하는 제19차 세계여성불교대회가 6월 16일부터 20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칭에서 열린다.

'전환기의 불교 여성, 변화를 모색하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샤카디타 코리아를 비롯해 전 세계 여성 불자 8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대회는 세계의 명상, 논문 발표, 워크숍, 문화공연 등으로 진행된다. 16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세계의 명상 지도자들이 각국의 다양한 명상법을 지도한다. 논문으로는 한국 참가자들의 △한국 간화선 명상 △한국 비구니 승가 지도자의 역할 변화 △한국 '힙 불교' 변화 속 여성 재가불자들의 새로운 역할과 리더십 발표를 비롯해 △마음챙김의 네 가지 기초 △부탄 여성 수행자의 변화의 여정 △초기 불교의 여성 관념 △티베트 불교 여성의 리더십 진화 △태국의 여성과 불교 신성화 등이 발표된다.

이와 함께 '국제 샤카디타 조직의 중요성', '마음과 가슴 속에 자비의 꽃을 피우다', '마음챙김 글쓰기', '불교 영적 돌봄' 등을 주제로 워크숍이 진행된다.

매일 대회 시작 1시간 전에는 명상을, 저녁에는 염불을 하며 교감하는 시간이 마련된다. 19일에는 대회를 주관하는 쿠칭불교회의 문화·무용팀의 다채로운 공연도 펼쳐질 예정이다.

'붓다들의 딸'이라는 뜻을 가진 샤카디타는 1987년 설립됐다.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 각국 여성 불자들의 활동을 공유하고 교육과 연구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국을 비롯해 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 프랑스, 대만, 네팔 등에 지부를 두고 있으며 2년에 한 번씩 세계불교여성대회를 개최해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여수령 기자

달라이라마 "李대통령, 한반도 평화 이룩하길"

6월 5일 당선 축하메시지
"양국 우호 강화" 기원도



달라이라마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당선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공식적으로 보냈다. 사진출처=달라이라마 사무국

티베트 불교 지도자 달라이라마가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발표했다.

달라이라마 공식 사무국은 6월 5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달라이라마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내는 축하메시지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달라이라마는 메시지에서 "오늘날 세계는 매우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상호의존성과 인류의 일체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는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와 대화를 통해 한반도 지역의 항구적인 평화를 확보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과 티베트 불교 교류도 언급했다. 달라이라마는 "최근 몇 년 동안 인도에 재건된 티베트 불교의 전통 강원과 여러 교육시설에서 공부하는 한국불교 신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며 "저 역시 성지순례를 위해 인도를 방문하는 한국의 불교 법우들을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다"고 양국 불교의 우호 관계가 강화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달라이라마는 "앞으로 닥칠 어떤 도전에도 성공적으로 대처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바람과 열망을 실현하며 더욱 조화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길 기원한다"면서 자신의 기도와 축원을 보낸다는 말로 축전을 끝맺었다.

한편, 달라이라마는 한국과의 교류에 오랫동안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지난 2022년 이태원 참사 발생 당시에도 애도의 메시지를 담은 친서를 한국 정부에 보낸 바 있다. 달라이라마는 메시지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에게 애도를 표하고, 참사 원인이 소상히 규명돼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기를 서원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하토야마 전 日총리, 태학사 마애불 친견

6월 7일 천안 태학사 참배
"평화로운 양국 미래 지향"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가 6월 7일 천안 태학사를 참배하고 삼태리 마애불을 친견했다. 사진 왼쪽부터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 태학사 주지 법연 스님, 오카다 코우오우 신한일우호회 일본 회장.

2015년 8월, 옛 서대문형무소 추모비 앞에 무릎 꿇고 과거사에 대한 사죄의 뜻을 밝힌 바 있는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전 일본 총리대신이 6월 7일 천안 태학사(주지 법연 스님)를 참배하고 삼태리 마애불을 친견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한일 불교계 인사들이 함께하는 신한일우호회(공동회장 인경 스님)가 개최하는 제3회 대한민국 천불사 대회 참석을 위해 방한했으며, 한일 관계 미래를 주제로 특강을 했다.

방한 일행 40여 명과 함께 태학사를 찾은 그는 간단한 예불을 올린 뒤 고려 불교 문화의 유산인 삼태리 마애불을 친견했다.

오카다 코우오우 신한일우호회 일본 측 회장은 "일본에서는 마애불을 '거울바위'라고 부른다. 우리 모두가 거울바위, 즉 태학사 마애불이 되어 평화로운 미래를 지향하는 신한일우호회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태학사 신도회는 이날 방문객들에게 삼태리 마애불 인근에서 재배된 쌀을 선물로 전달했다. 이날 방문은 한일 양국 간 신앙과 문화의 깊은 교류를 상징하는 뜻깊은 일이라는 평가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화제의 신간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3일 기도

3일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삶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책!
실천 가능한 기도의 방식과, 수행의 가치를 알기 쉽게 설명한 책!



"기도는 마음을 변화시키고 행복으로 이끄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기도는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수행의 첫걸음입니다.
'수호신 기도'는 그 시작을 돕기 위해 집필된 책입니다"



수호신 기도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3일 기도
묘장 편저 | 112쪽 | 10,000원

현재 연화사 주지. 국제구호단체 더프라미스 이사장,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이사, 불교신문 논설위원. 아이티 대지진, 동일본 대지진, 태국 대홍수, 네팔 대지진, 포항 지진, 모로코 지진에 재난구호활동과 우크라이나 전쟁난민 지원 활동을 하였다.
저서로 『도표로 읽는 부처님 생애』가 있으며, 나는 절로 초계종사회복지재단 대통령상 수상(2024),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어워즈 대상을 수상(2024)하였다.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